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1 | 여름 vol.53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Regional Cultural Exchange Foundation

이화여자대학교

네모난 교실은 잊어라!



전남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개년 175개교, 1조3천억 투자

-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다양한 공간혁신
- 미래형 교수학습을 위한 스마트교실
- 환경생태교육을 고려한 그린학교
-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학교복합화



표지이야기

박구환, In full bloom M200701, Oil on canvas, 90,9×65,1cm, 2020.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동대학원 순수미술과 졸업.
개인전44회(서울, 부산, 대전, 전주, 울산, 광주, 후쿠오카, 동경, 뉴욕, 말레이시아, 카오슝, 대만) 주요전시 뉴욕아트페어 자콥케이컨벤션센터/뉴욕, 한국국제아트페어 코엑스무역센터/서울, 서울오픈아트페어 코엑스무역센터/서울, 서울판화미술제 예술의전당/서울, 대구청년비엔날레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 판화 교류전 대만 시립예술센터/대만, 길-영상 시립미술관분관/광주 등.

2	‘창’을 열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김덕진
3	특집기획_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제대로 가고 있나? 아특별 개정안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주요과제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안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CT 연구원	김기곤 황병하 송진희
10	특집기획_민선7기 남은 1년, 문화 정책(행정) 과제와 전망 공약과 성과, 그 사이 어디쯤 기초 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삶 나아졌나? 문화협치 현주소, 그리고 과제	김광욱 김양균 엄수경
16	문화인 탐구생활 꽃보다 사람에게 눈이 가는 화가 김화순	이지호·김화순
21	기획연재_호남지역의 서원, 향교, 사찰, 정자의 현판과 주련이야기 취하여 부르는 노래	임준성
24	문화진단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를 통해 드러나는 광주 문화도시 미학의 존재 코로나19 상황 속 영혼과 마음세계 탐구	조동범 조인호
28	문화현장 그냥 만화 그리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시향(詩香), 시낭송의 물결	정배영 김수하
34	문화청년그룹 나의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도전기! ‘일층몽구점’	이지유
36	문화리뷰 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걸었다 페미니즘과 영화 <택시운전사>	전경훈 조정인
40	문화특특_김옥열의 포토에세이	김옥열
42	재단소식·회원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김덕진_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



코로나의 공포감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고통스러운 증상은 애써 듣고 싶지 않고, 감염에 의한 죽음은 아예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여기에 주변의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들의 '죽겠다'는 신음도 귓전에 맴돕니다. 공무원이어서 다복다복 월급은 나오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나의 사생활 제약도 내 마음속을 비집고 파고들어와 삶을 옥죄는 한 축을 형성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치료 약이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우선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감염자를 줄이는 길은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방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예방 접종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백신을 어렵게 수입을 하고 부랴부랴 접종에 나섰지만, 이런 말 저런 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좀 안다는 사람,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함부로 말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의료계 종사자와 75세 이상 어르신에 이어 대국민 밀접 종사자까지 접종 대상이 되어 뭐라고 해도 접종은 확산일로에 들어섰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6대 이사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취임식은 없었지만, 언론을 통해 인사말을 드린 바 있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 인사말을 올립니다.

우리 재단은 그동안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 및 콘텐츠화·플랫폼화, 그리고 지역문화의 담론형성 및 연대사업·대안 창출, 또한 회원의 유지 및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일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지수' 함양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2005년 창립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문화단체로 성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선 이사장님의 인품이나 능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부담이 없지는 않지만, 저 역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급선무는 코로나 확산 이후 교육격차만큼 시민들 간에도 문화 격차가 커지고 있어 우리 재단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늘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할 일이 태산 같아 마음은 바쁘지만, 정부 발표처럼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어야 어떤 일이든 편하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저 역시 9월이 되어야 예방 접종 대상자 순서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과 독자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제대로 가고 있나?

민선7기 남은 1년, 문화 정책(행정) 과제와 전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별)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에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중에 있으며,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민선7기도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집 기획에서는 '아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후에 놓치지 말아야할 지점' 과, '민선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과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와 문화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제언이 문화도시 광주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편집자 주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제대로 가고 있나?

- 아특별 개정안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주요과제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안
황병하_ 조선대 명예교수
-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CT 연구원
송진희_ 호남대 예술대학장

민선7기 남은 1년, 문화 정책(행정) 과제와 전망

- 공약과 성과, 그 사이 어디쯤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기초 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삶 나아졌나?
김양균_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 문화협치 현주소, 그리고 과제
엄수경_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아특법 개정안 이후 문화전당의 전환을 위한 주요과제



김기곤_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국가기관 5년 연장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2020년 6월 9일 첫 발의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26일 제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문화원의 사업과 조직을 문화전당이 흡수·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가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의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수행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 승계와 아특법 효력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한다는 것도 담고 있다.

후속조치의 방향과 원칙

아특법 개정안에 전문인력 대폭 충원,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원이 축적해 온 유무형의 자산 승계 문제 등을 담은 부칙이 삭제된 점은 우려할 사항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개정안 이후 후속조치의 범위와 내용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 가야 한다.

후속조치는 문화전당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법과 제도, 조직과 인력, 조직문화 등 운영체제 전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주요 사항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후속조치는 문화전당의 위상과 기능의 강화, 문화전당의 운영 기반 확장, 문화전당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유무형 자산의 전면 승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 간 협력의 확대 심화 등을 주요한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문화전당 조직과 인력의 확대 재구축

문화의 기능과 문화정책대상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적 삶을 위해 한국형 문화 뉴딜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고 문화전당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야 할 상황이다. 광주지역 차원에서는 문화전당의 문화콘텐츠 창·제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전당의 운영 효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다.

문화전당의 조직과 인력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축소

아특별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와 활성화이다. 문화전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운영 동력을 확보해 조성사업의 원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전당 조직과 인력의 전향적인 재편, 혁신적인 운영모델 창출, 지역과의 협력 제도화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향이 아니라, 문화전당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확대 지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인력의 규모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산정해 볼 수 있다. 2014년 문화전당 개관 1년을 앞두고 문체부가 용역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방안 연구』에서는 문화전당의 최적화된 인력 규모를 482명으로 잡고 있다. 또한 문화전당 5개원의 공통 기능을 통합 관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최소 인력 규모는 423명이다. 2019년 문체부가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현황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381~429명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 인력의 고용 승계는 보다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선 아시아문화원이 쌓아온 문화 업무 경험을 지역의 중요한 문화 역량이자 축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온전히 유지 계승해야 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운영될 문화전당은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용 승계 문제를 사회적 가치 실현의 차원에서 시민의 노동권 보장과 연계 시켜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전당 조직 체제 구성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실 전당장의 직급 설정과 신속한 채용이다. 현재의 문화전당장 직급은 전문임기제 가급이다. 문화전당의 위상 제고와 전당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전당장의 직급은 최소한 고위공무원 가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과의 협력은 5개원이 참여하는 효과 창출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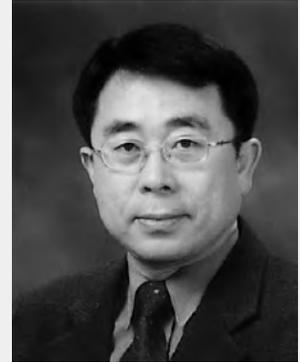
문화전당의 운영 성과와 문화 도시조성 사업의 성과는 지역과의 협력 정도와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 협력은 문화창조원 등 문화전당의 5개원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협력 체제로 발전해야 한다. 지역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의 위상을 높여 새롭게 재조직하고, 이 부서가 지역협력에 관한 기획과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 5개원의 지역협력 담당 인력이 문화 행정 거버넌스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전당 내부에서부터 지역협력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창·제작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당의 기능 활성화와 그것의 효과를 지역 내부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효과 창출형 협력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5·18 관련 기관 및 주체가 주도하는 정책과 이슈 중심의 협력에서 지역예술가, 청년문화기획자, 창·제작엔지니어, 혁신기업가 등으로 확대해 전당의 각 기관에서 지역협력의 효과를 실질화하기 위한 단위별 협력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특별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전당 운영의 정상화와 활성화이다. 문화전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운영 동력을 확보해 조성사업의 원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지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문화전당 조직과 인력의 전향적인 재편, 혁신적인 운영모델 창출, 지역과의 협력 제도화 등에 관한 후속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되길 기대한다.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 방안

황병하_ 조선대 명예교수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유효기간이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되었다. 현재 문체부는 문화전당의 직제 개편과 인력 확대, 그리고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 고용 승계 방법 등에 관해 행안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정부의 긍정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기대하고 있지만, 문체부가 현재까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와 새로운 연대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동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당 내 지역협력 추진체계 설치와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지역협력 추진체계 구축은 문화전당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원은 조직 내에 지역협력팀을 설치하여 2019년 기준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14건, 지역협력사업 프로그램 11회, 1팀 1지역사랑 사업 157건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지역사회 소통 프로그램 16건, 지역협력 추진과제 49개를 시행하였다. 문제는 문화원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전당 내에는 지역협력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직제 개편안에 지역협력 부서가 논의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체부가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을 원한다면,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지역협력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문화전당 운영 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자문위원회와 지역협력위원회에도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의 확대 요구는 지금

향후 문화전당과 지역사회가 합리적인 동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당 내 지역협력 추진 체계 설치와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전당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까지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문화원과 달리 전당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대학 등과 적극적인 소통 및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의지가 부족했고, 지역사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이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전당은 지역사회가 요구했던 전당 내 시설, 장비, 기술 등에 대한 공유 노력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문화전당 설립으로 기대했던 지역사회 문화예술 공유 기회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당은 지역사회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정례화해야 하고,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4.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요구는 지금까지 전당이 일방적인 top-down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전당의 전체 과제 중 지역사회 단체 및 대학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매우 적었다. 이는 전당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으며, 지역사회 맞춤형 공동과제 발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정을 공론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창구가 상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전당은 지역사회 단체와 시민의 사전 사업 공모제 및 예약제를 실시할 것과 지역사회 우수과제 공동발굴 및 사업 참여 할당제(30%) 실시를 제안한다.

5.

오는 9월부터 문화전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된다. 새로운 직제로 출발하게 될 전당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대화, 그리고 협력 시스템 구축이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성공은 결코 내부적 인식 변화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 및 문화예술 단체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전당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및 개입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 인식을 토대로 전당은 향후 종합계획 수립과 사업실행, 성과관리 및 평가와 환류 시스템 구축에서 일방적인 추진보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추진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은 전당의 미래를 담보해주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특집기획_ 아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제대로 가고 있나?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CT 연구원

송진희_ 호남대 예술대학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아특법) 개정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계 각층의 의견들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전당의 조직과 직제개편, 인력충원, 기존 문화원의 자산과 고용 승계, 전당장 영입 문제 등 외적인 틀이 단단히 짜여야 한다는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 서비스하느냐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당의 콘텐츠는 문화기술과 융합하지 않고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문화기술은 ‘메타버스’가 제2의 현실로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제한적인 성장을 보여온 AR, VR 등이 XR(미래에 나타날 신기술의 총칭)기술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 중이다.

문화전당의 창조원에서 세계적인 킬러콘텐츠를 기대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문화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정부출연연구원으로의 **한국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연구원의 설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즉 국가적 차원의 **국립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유치되어야 아시아문화전당의 혈관이 제대로 움직여 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으로 문화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문화기술은 무엇이고 왜 CT연구원이 필요한 것인가?

문화기술(CT)이란 예술, 디자인, 인문사회학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창조, 감성, 상상력에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문화 콘텐츠를 창조해내고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총체적 기술을 의미한다.

2012년도 문체부의 문화기술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 27조4000억 가운데 1139억 원에 불과해 0.42%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첨단실감 문화 콘텐츠 등의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아울러 이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이 세계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을 전담하여 연구할 수 있는 독립연구기관의 설립과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CT연구원은 왜 광주에 설립되어야 하는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아문화전당과의 동반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CT연구원의 설립을 지시하였다. 그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계획에 CT연구원 설립이 반영되었고, 2009년 착공해 2012년 개원을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가 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없다, 건립 규모를 축소하라며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CT연구원 설립은 지역공약에 포함되었으나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CT연구원의 광주 설립 문제는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표류하고 있고 또한 전망도 아직은 매우 불투명한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광주에 CT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문화기술(CT)연구원이 꼭 광주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적시해 본다.

첫째, 오리지널 연구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CT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14년 전부터 정부가 연구원 설립을 지시하였으나 미해결된 과업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완결은 CT연구원을 설립하여 문화기술을 개발하고 전당을 비롯한 유관기관에 전방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문화도시의 지속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최적의 생태계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창조원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송암산단의 광주실감콘텐츠큐브, 2026

년 준공 예정인 AI 중심산업 집적단지인 AI융복합지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빛가람 혁신도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기술개발-창·제작-공연, 전시-유통의 유기적 협력과 시너지 효과 가능

CT연구원에서 개발한 문화기술은 바로 전당 콘텐츠 창·제작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전당의 전시와 공연 등을 통해 수용자들과 만날 수 있다. 이처럼 문화기술의 콘텐츠화는 구조적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문화기술을 국내의 기업이나 세계시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콘텐츠진흥원 등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담기관들이 있고 아울러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다.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를 정립해 문화콘텐츠산업의 첨단화 및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문체부 내 문화기술 전담부서와 문화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문화기술(CT)연구원이 반드시 우리 광주에 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타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지역정치인, 광주광역시 그리고 150만 시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합할 때 만이 우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추진방식 또한 지난 14년의 것과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속담에 “신념이 강하면 태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다. 

공약과 성과, 그 사이 어디쯤

김광욱_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0.

모든 선거가 그러하듯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얻기 위해 공약을 내건다. 당선자로 신분이 바뀐 뒤 열심히 노력하지만, 유권자로부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냐는 비아냥을 듣는다.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지만 유권자는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눈높이가 높다는 이유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광주시 민선7기 상황도 유사하다. 문화 분야 관련 공약 이행상황을 보면, 100% 이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반응이 따뜻하지만은 않다. 광주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서일까?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 특별법 시한이 연장되었다는 점과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언제부터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전락하여 국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버거워진 마당에 개정안 통과는 분명 환영할 일이고 향

후 기대감을 높이는 일임이 분명하다. 또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를 운영했다는 점도 협치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연계성 제고 및 운영체계 조정’이라는 공약에 해당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다.

여전히 사업의 외연은 광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협의체의 구성을 보면 광주 이외의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극히 작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이른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추진 능력 부족이라는데 일견 동의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시민단체, 지방정부와 지역 문화예술시민단체, 그리고 아시아국가들과의 네트워크라는 틀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이 되는 도시는 요원하다.

이번 아특별 개정안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지역

이번 아특별 개정안과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지역적 혜택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 짙다. 민선7기의 세 부 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품격있는 광주로 되고 있다는데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공약과 성과 그 어디쯤에 중요한 것을 놓친 느낌이다.

적 혜택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선택에 맞추어져 있는 느낌이 짙다. 공약은 이행되고 있지만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2.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 중인 광주 문학관 역시 민선7기 공약 중 하나였다. 십수 년 넘게 지역사회에서 논의만 되다 무산되기를 여러 차례. 문학관 부지를 시화문화마을을 문화관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분명 격려를 받기에 마땅하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토로한다.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가 광주 문학관의 입지와 접근성이다. 지나온 과정을 되돌려 보면 특정 장소에 관한 이슈는 있었어도 광주 문학관의 입지로 번번이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지역 내 문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벌어진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광주 문학관이 추진되다 보니 문제점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문학관을 채울 콘텐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위원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더니 급기야 콘텐츠 추진위의 일부 위원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를 언급했다.

문학관은 기본적으로 문인을 기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문인의 문학관이 아니라 지역의 문학관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문인의 범위부터 문학관에 들어가는 문인을 선별하는 문제, 콘텐츠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 등등 세부적인 요소까지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필터링해 주며 추진해야 하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일 수밖에 없다.

행정에서 콘텐츠 추진위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의결 과정에서 합리성과 적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넓게 보아 문학관을 수립하는 과정은 광주 문단의 담론 형성 과정이기도 하다. 행정이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 되지만, 좋은 담론이 형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행정의 몫이다.

3.

우리 사회에 만연된 정량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 GDP와 경제성장률은 물론이고 연일 보도되는 코로나 확진자 수까지 숫자에 매몰된 사회 같다. 100% 공약 이행이라는 주장도 맞는 이야기고,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이 아니라는 주장도 맞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본질은 공약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가상자산도 오른다. 이들이 오르는 것 자체로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주택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 주식은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오르는 과정이 공정했고, 정당하다면 누가 문제를 삼겠는가? 민선7기의 세 부 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품격 있는 광주로 되고 있다는데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공약과 성과 그 어디쯤에 중요한 것을 놓친 느낌이다. 

기초 예술지원 및 문화예술인의 삶 나아졌나?



김양균_ 사)전통문화연구회 얼쑤 대표

원고를 쓸려다가 뭘 쓸까 한참 고민을 했다.

별로 쓸 말이 없어서다. 그저 좌절감과 무기력증이 몸과 맘을 지배해 버렸기 때문이다.

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기엔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이다.

지난 1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하기 싫다.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두려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포심으로 변했고, 곧 예전처럼 관객들과 함께 소리치고 뛰노는 공연판이나, 11년 동안 온몸으로 만들어온 <광주예술난장 굿판>도 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버텼지만 그런 기대감은 어쩌면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아니 내후년도 기대를 접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전에 공연예술인들은 3월의 지역축제를 시작으로 4~5월과 9~10월을 바쁜 날들로 보냈다 (지역 축제들이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기 3개월, 후반기 3개월 벌어서 일 년을 버텨야 한

다는 상황들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전국을 누비며 공연을 하러 다닐 때는, 관객들과 함께 놀면서 광주의 멋진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겨울철 빙판 위에서 물을 사용한 작품(질주)과 한여름 땀벌에서 불을 사용한 작품(타고)을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에서 올리곤 했다. 하루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3도를 뛰었던 때와 폭설을 뚫고 강원도까지 갔던 기억들은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추억들로 기억될 듯하다. 공연 예술가들뿐만 아니다. 질 좋은 상품에 고객의 관심을 한눈에 잡아들이는 멋진 포장술이 필요하듯이, 좋은 작품에도 성능 좋은 조명, 음향, 무대와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 공연과 시스템은 부부처럼 늘 함께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은 모두 도산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전문공연자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문 인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밍기만 하다. 글을 쓰면서도 코로나 발생 후의 공연 횟수를 생각해 보니 횟수를 센다는 게 민망할 정도다. 지역축제와 지자체 행사가 모두 취소되니 살길을 찾아 현장을 떠나는 이

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면 그동안 광주의 공연 예술을 이끌어 왔던 전업 공연자는 모두 사라지고, 동아리 수준의 공연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국악 상설공연장에서 민간공연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코로나의 확산세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또한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신규 단체의 진입은 어려워서 미래의 광주 공연판을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2020년과 2021년 5월까지 나의 월별 공연 횟수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020년	국악 상설	4			2		1					2	1	2	12
	일반 공연							1	1		1	3			6
2021년	국악 상설		1	1	1	2									5
	일반 공연	1													1

몇 일 전 오래전부터 얼쑤와 함께 해왔던 조명 담당하는 후배가 막걸리 몇 병을 들고 찾아왔다. '대표님 이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운용해서 먹고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면서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20여 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단원이 광주 생활을 청산하고 진도로 내려가서 목공예 공방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한다. 광주에서 내로라하는 공연단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철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나도 일거리 좀 주라 했지만 우스갯소리 만은 아니다. 함께



했던 단원들이 각자 삶의 방편으로 방역을 하러 다니거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다른 삶을 찾기 위해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한다는 후배들(사실 나도 공부 중이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30여 년을 공연 현장에서 뛰었던 내 자신이 접하기 힘든 상황들을 보면서 견디기 힘들어 우울감이 가슴을 짓누른다.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공연 현장을 어디까지 변화시킬지 모른다. 특히 관객들과 함께 뛰고, 소리 지르고,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온 현장 공연자들의 상실감은 너무 크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연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고, 공연 형태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 쉽게 이야기한다.

사실 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나 급작스레 닥쳐온 변화에 적응하기에 내가 과거의 사람인가? 라고 반문해 본다. 그래도 내년엔 좀 더 나아지지 않지 하는 희망마저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ㄴ

문화협치 현주소, 그리고 과제

엄수경_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시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유행한다. 요즘 가장 자주 듣는 단어가 거버넌스다. 이 용어는 어느 순간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었다. 광주광역시도 민과 관이 협력한다는 의미로 '민관협치협의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불편했는데 민관거버넌스라고 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럽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 도시에 걸맞은 민과 행정이 협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요구와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해법을 찾음으로써 진정한 광주 정신을 실천한다고 한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민관협치협의회는 9개 분과위원회로 분화되어 있다. 환경, 복지, 사회적 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문화, 인권교육, 청소년 등에 각각 광주형이란 말을 붙여 강조했다. 광주형 환경, 광주형 사회적 경제, 광주형 자치·마을공동체, 광주형 여성 등등. 여기에서 광주형이란 용어만 들으면 광주만의 특색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사용하는 용어다. 예향, 의향, 미향처럼 말이다.

분과위원회 중 문화분과가 민관협치협의회로 협력하는 길은 순탄한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기

다림의 미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이 민간(예술인 입장)에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바라다면 협치는 이뤄질 수 없다. 시간 위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민과 관이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야 한다. 누군가 연애와 결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 연애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결혼은 같은 집에서 만나게 된다. 각자와 함께하는 면에서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 분과가 문화라는 생각이다. 서로 간섭하고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가장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때로는 각자 선을 넘는 행동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통하는 진심이 필요하다.

문화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런 것 같다. 문화도시 역시 사업화되어 지역다움 없이 이벤트성 행사나 일회성 공연, 소모성 문화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술인과 행정, 누구 책임인가?

문화야말로 지역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다. 광주 정체성과 방향성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요소다. 사례를 외국에서 찾지 말자. 다른 지역 모델을 따라가

수목조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꿈틀대는 리즘적 흐름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꽃을 피울 기회가 될 것이다. 민관협치협의회를 통해 광주에 새로운 문화예술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도 말자. 광주형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빌려온 온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협치 더하기, 협치 곱하기, 협치 나누기가 될 때 가장 광주다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일상생활에서 다르게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전시하고 공연을 하는데 일상 시간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문화예술을 누린다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 외 공휴일이나 저녁 시간인 일상 시간 그 외의 시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행정은 근무 시간 외라고 불편함을 호소하겠지만 특히 문화분과는 근무 시간에 탄력을 가져야만 협치다움이 이뤄질 것이다. 문화는 경제적인 도움만을 요구하고, 행정은 문화가 늘 징징거린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현재 그 어떤 분야보다도 자신 호주머니를 털어 문화예술관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예술인들이 지지치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판을 깔아주고, 예술가가 그 위에서 다양하게 창작활동을 하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협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빛을 낼 수 있다.

문화는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은 시간 위에서 주름과 속살을 채워간다. 효과가 가장 더디게 나타나지만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은 세포분열을 일으킨다. 리즘처럼 발화되고 생산되며 문화는 다음으로 성장한다. 광주다움, 광주형이 된다는 뜻이다.

리즘적 특징을 본다면 나무뿌리와 달리 어떤 지점에

서든 다른 지점과 연결 접속한다. 반드시 자신과 동일 본성을 가진 특질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로도 여럿으로도 환원되기를 추구한다. 리즘은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원들 또는 방향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문화에서 리즘은 시작도 끝도 갖지 않고 중간을 가지며 중간을 통해 자라고 넘쳐날 수 있다. 문화예술이 고름판 위에서 펼쳐질 수 있는 선형적 다양체를 구성할 것이다. 분할선들 성층작용 선들이 여러 차원을 이루고 도주선 탈주선을 따라 본성이 변하며 변신한다. 변이, 팽창, 정복, 포획, 꺾꽂이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 꽃을 피울 것이다. 항상 분해될 수 있고 연결 접속, 역전, 수정될 수 있는 나무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든 관계다. 모든 종류의 생성(되기)이다. 되기란 광주다움이 된다는 의미다. 문화예술이 생성(되기)을 가장 적확하게 이뤄낼 수 있는 분야다.

행정은 수목 모델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심 줄기가 점차 작은 잔가지로 분기하여 뻗는 계통적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안정적일지 모르겠으나 문화는, 문화예술은 근대사회 지배적인 가치로 정부나 기업에서부터 군대조직,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위계 조직에 편승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줘야 한다.

수목조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꿈틀대는 리즘적 흐름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꽃을 피울 기회가 될 것이다. 민관협치협의회를 통해 광주에 새로운 문화예술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은 문화예술관을 만들고 민(문화예술)은 그 위에서 다양한 되기를 해갈 수 있는 협치를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꽃보다 사람에게 눈이 가는 화가 김화순

대담 이지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업팀장·김화순 화가

무엇보다 주변에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담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가가 되는데 꿈입니다.

이지호(이하 이)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화순(이하 김)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김화순이라고 합니다. 함평에서 태어났지만, 광주에서 대학생활을 했어요. 전남대를 다니며 서양화를 전공했구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때가 한창 민주화운동의 바람이 불 때였거든요. 학생운동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때였기에 저도 미술협회활동을 하며 줄곧 대학생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미술협회화리 연합회 벽화를 그렸는데 전대 사범대 민중항쟁도 벽화를 그렸을 때가 2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중미술을 그리고 있어요. 졸업 후에는 시민단체 활동과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민미협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영화제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미술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특히나 민중미술로 방향을 정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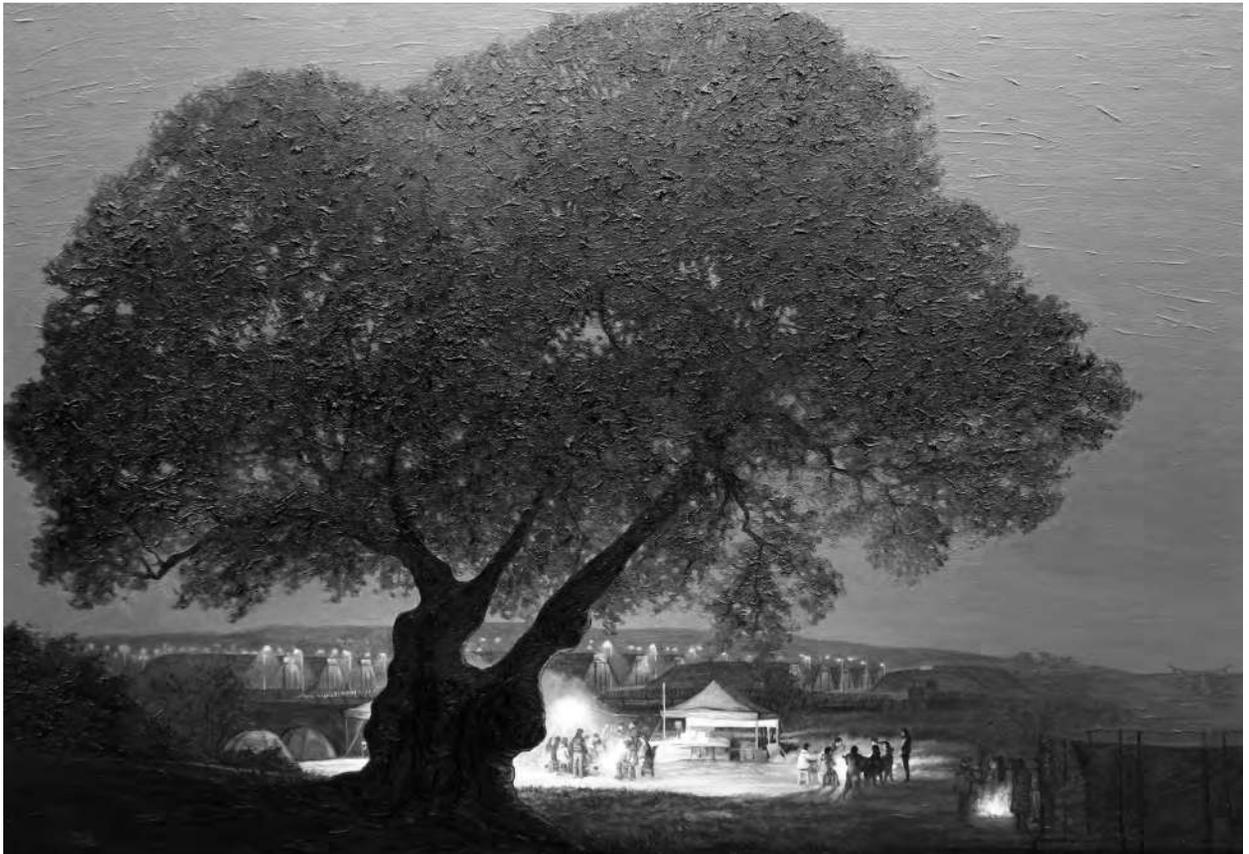
김 제가 다섯 살 때부터 그림을 제법 그렸어요. 그때부터 꿈이 화가였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운이 좋아 미대에 진학을 할 수 있었죠.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림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멋진 곳은 내가 다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데모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때 선배들이 미술패 동아리를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그림으로도 데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남대 민중미술패 신바람을 추천해줘서, 거기서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부터 내가 생각한 그림의 정의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대학 입학하자마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미술패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갓 스무살이 된 여성의 미술패 활동은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민중미술을 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 미술패 생활은 뜨거운 민주화 열망을 풀 수 있는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미술패에서는 철학과 미학, 역사, 민중문화에 대한 것을 한창 공부하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민중미술에 대한 방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선전대회 옷을 입고 스프레이를 양손에 든 채 도로에 노태우 전두환 얼굴 그리고 또 실크스크린으로 뭘 찍고 이런것들을 했어요. 근데 전 지금까지 민중미술을 하며 살아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현장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민주화에 가장 앞장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졸업을 하고도 가능하면 현장에 있으려고 하고 항상 사람들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술계에서는 현장성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맞는 길을 아주 잘 찾지 않았나 싶어요.

이 막 대학에 진학한 후부터 줄곧 민중미술을 그리셨으면 어렸을 적 꿈이었던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고 싶은 꿈은 못이루셨겠어요?

김 예전에는 첫 번째 도록에 보면, 김희용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자네, 왜 꽃그림이 없는가?” 저에게 물으셨는데 “세상이 더 좋아져야 꽃을 그리지요.” 라고 답을 했거든요. 어여쁜 꽃보다 그 옆에 쓰러져있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데 꽃그림을 먼저 그릴 수는 없더라고요. 부지런했으면 둘 다 그렸을텐데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세월호 참사 때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든 와중에 전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품형식으로 예쁜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전시오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마음으로 사갈 수 있게 해라, 그런게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제 팽나무 아래서 평화를 궁리하다」, 112x163cm, 캔버스에 아크릴, 2020.

서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도저히 그릴수가 없더라고
요. 보통 사람들은 예쁜 그림이라고 하면 꽃그림, 아
름다운 풍경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림을 그리다보니
까 그것도 예쁜 것이지만 실은 여기 걸려있는 그림처
럼 팽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논하는 저 사람들이 이쁘
고, 함께 길을 걷는 저 사람들이 예쁘고, 저렇게 함께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진
짜 예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
어요. 제 그림 안 예쁜가요?

이 아니요. 그림들이 너무 예뻐서 놀랐습니다.
제가 접해왔던 민중미술은 대학교 벽에 그려져 있던
벽화처럼 굉장히 직설적이고 과격한 장르로 알고 있
었는데 반면에 작가님의 그림은 참 아름답고 예쁘다,
민중미술도 집에 놓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

거든요. 말 나눔 김에 여기 걸려있는 이 작품 소개좀
해주세요.

김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
예요. 「하제 팽나무 아래서 평화를 궁리하다」라는 작
품인데 이게 군산의 한 마을 이야기예요. 하제 마을이
라는 곳이 있는데 새만금 사업으로 물이 막혀버리니
까 조개로 먹고 살았는데 근데 그 마을이 살기가 힘들
어졌죠. 거기에 지금은 미군부대가 크게 있어요. 새만
금 옆 갈대밭을 쪽 따라서 걸어가면 미군부대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있고 심지어 저 미군부대 소유의
활주로가 있어요. 근데 미군측에서 이 하제마을 땅까
지 본인들한테 주라고 했데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하제마을에 있는 660세대가 넘는 주민들을 십년이 넘
게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는 두 집이 남았어요. 그래
서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한 싸움을 오

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어느날 강정마을 지킴이로 활동중이신 문정현 신부님이 문정연신부님이 오셨어요. 군산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평화활동가들하고 둘러보는데, 그 곳이 이주해나갈 때마다 계속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하다보니까 저 뒤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거예요. 문정현 신부님이 저 나무에 가까이 가보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엄청 큰 거예요. 밑에 표지석이 있는데 600년된 팽나무 인거죠. 그것을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집들 사이에 숨겨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근데 그 나무가 문정현 신부님이 가까이가지 어딜갔다 이제 오느냐고 큰 소리를 쳤네요. 그래서 거기서 그 팽나무를 꺾어놓고 평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문정현 신부님이 여기 있으면서 팽나무를 중심으로 팽팡문화제를 하면서 하재마을 지키기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림에 저 날은 팽팡문화제 첫 번째 하던 날이었어요. 작년 10월 31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술가들이 텐트를 가지고 1박2일동안 아예 거기서 살면서, 저녁에 거기서 문화제를 열었어요.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도 부르고 저녁내 모닥불 켜고 모여서 어떻게 이 나무를 지키고 이 마을을 지킬 것인가, 이 한반도가 전쟁기지화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하면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것인가를 이래저래 궁리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문화제를 열자고 해서 지금 그 뒤로 한 달에 한번 팽팡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하재 팽나무 아래서 평화를 궁리하다」예요. 팽나무하고 평화를 논하는 저 사람들이 그 주위로 빛을 만들고 있는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많은 생각이 나요. 내 주변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겹쳐서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또 그런 사연에서 탄생한 작품이군요. 그런

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이나 듣고 난 후나 그림에 대한 느낌이 다르지 않네요. 사연을 모른채 그림을 봐도 가슴에 닿는 느낌이 희망과 의지가 느껴져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짙은 색감에 배경이 삭막함에도 결코 어두운 작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 작품을 좀 더 보고 싶은데요. 다른 시위현장의 그림들도 투지나 희망과 새 현장성 있는 그림을 담다보니까 그리면서도 버거운 작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김 저는 오월이 되면 오월전을 항상 했어요. 2014년도 오월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오월전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릴수도 없고 안그릴수도 없고 마음이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었는데, 그래도 안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를 코앞에 닥쳐서 결심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힘들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정신이 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일상조차 돌아보지 못했을 때, 그래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야 되기에 그렸죠. 그걸 제일 힘들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에요. 「천개의 바람이 불어」라는 그림인데, 이게 엄마가 발두렁에 씨앗을 뿌리려고 고랑을 만들 어놨어요. 근데 맨발로 고랑을 반대로 짓이키면서 연꽃을 들고 거슬러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일상이 무너지는 슬픔, 그리고 이 그림을 기해 4월에 그렸으니까 이 연꽃을 그리면서 천개의 많은 사람의 바람이 기적을 이뤄내기를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림이죠. 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그렸는지 몰라요. 도저히 붓을 들 용기도 없는 상황에 아픈 마음을 꼭꼭 누르며 통곡을 하면서 그렸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새웠어요. 이 그림 그리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이 지금까지 세월호, 여성, 통일 등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을 더 담고 싶으



「천개의 바람이 불어」, 130.5x160cm, 캔버스에 아크릴, 2014.

신지요?

김 앞으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담아가겠지만, 우리한테는 숙제가 있잖아요. 광주의 오월을 어떻게 시대에 따라 재해석해 가느냐, 또 작가들에 따라서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광주와 오월에 대한 이야기거의 숙제인거 같아요. 작년에 오월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앞으로도 그려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세상 만들겠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예술가로서 좀 간절함과 솔직한 마음을 작품에 담아내어서 미래 후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김 예술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생활모습 등이 그대로 묻어 보여져요.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온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나다운, 나같은 그림을 그려나가야겠다, 또 그림은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그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내 스타일로 원이 없을 때까지 말이죠.

이 민중미술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김 사실 민중미술은 순수미술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었다면 저 역시 다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예술가들은 각자의 눈에 비치는 그대로의 세상을 표현할 수 밖에 없잖아요, 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온통 부조리고 아픈이고 눈물이 나는 세상인데 평화로운 그림을 아직은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민중미술을 바라보는 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로 인해 힘이 부여되고 치유도 되는 것처럼 민중미술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중미술의 출발은 예술의 반성에서 시작되었잖아요? 예술가들이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지게 되면 예술로서는 생명성이 없다고 봐요. 예쁜 것은 인테리어로 충분하겠지만 민중미술은 사실은 그것을 넘어선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는 그림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쩔 때는 너무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은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아요. 직설적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오해해요. 그림이라면 훨씬 더 은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는데, 민중미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은유와 상징이 아주 많고요. 그 안에서 잘 드러다 보고 공감하고 느껴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입니다. ♪

취하여 부르는 노래

- 광주시 취가정(醉歌亭)

임준성_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오월은 눈이 부시게 푸르다. 연초록 새순이 아기의 살처럼 보드랍다. 요 며칠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범벅인 하늘은 오늘만은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다. 하지만 아직도 바깥출입은 자유롭지 못하다. 작년 연초부터 전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린 코로나19 때문이다. 미래학자들은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재편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느덧 우리네 일상도 코로나19에 맞춰가는 듯하다. 이미 사람들 얼굴은 마스크로 인해 절반 이상 가려진 상태에서 어색한 인사를 나눠야 하고, 예전처럼 손을 맞잡고 악수하는 것 대신 주먹인사로 바뀐 지 오래되었고, 어딜 가든 발열 체크와 손 세정제 바르기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처럼 얼굴 마주 보며 사는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광주 무등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두고 있는 광주 호 위쪽 취가정으로 향한다. 그나마 누정으로 향하는 걸음은 코로나19에서 조금은 자유롭다. 사람들 발걸음이 뜨문뜨문해서 혼자서 호젓한 시골길을 걷는 기



취가정 현판

분은 누정을 찾아가는 재미 중 값지다. 취가정은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자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화재 30호로 지정되었지만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켜켜이 묻은 누정은 아니다. 1890년 후손 김만식(金晩植)이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주위의 독수정, 환벽당, 소쇄원, 식영정에 비하면 건축 역사에서 그다지 큰 비중은 아니다. 그러나 역사성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은 무등산 아랫자락 현재 충효동인 석저촌(石底村)에서 태어났다. 석저촌이 충효동으로 바뀐 것은 1788년 정조가 김덕령과 그의 부인 홍양이씨, 형 덕홍(德弘)·동생 덕보(德普)의 충효



취가정 전경

정신을 기려 ‘충효마을’이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에서 유래했다. 김덕령의 자(字)는 경수(景樹),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아버지는 봉변(鵬變), 어머니는 남평반씨로 삼형제 중 둘째이다. 김덕령은 여덟 살 때 종조부 사촌(沙村) 김윤제(金允悌)에게 글공부를 하였다. 김덕령 어렸을 적부터 용모가 준수하고 기질이 특별했다. 눈의 광채가 사람을 쏘아보는 듯하였고, 십 리 밖의 물건도 볼 줄 알았다고 한다.

김덕령은 25세 때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형 덕홍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여 맞서 싸웠다. 형 덕홍이 “나는 왕사(王事)에 죽을 것이니, 너는 집에 돌아가 어머니를 봉양하거라.”하여 고향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한 달 뒤에 덕홍은 고경명(高敬命)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싸우다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어머니도 일 년 뒤

에 세상을 떠났다. 김응회(金應會)와 송제민(宋齊民)이 김덕령을 찾아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했지만 마침 상중이어서 “효를 굽혀 충을 펴기가 곤란합니다.”하여 정중히 거절하였다. 하지만 의병 5,000여 명이 보이고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자 김덕령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의병장이 되어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김덕령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이를 시기하는 세력으로 인해 반역(叛逆)이라는 누명을 쓰고 29세 나이에 그만 억울하게 죽고 말았다.

김덕령의 억울한 원혼은 훗날 후배 문인 석주(石洲) 권필(權韜, 1569~1612)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김덕령이 꿈에 나타났다. 그때 김덕령의 입을 빌어

노래한 내용을 글로 써서 「취시가(醉時歌)」라는 작품이 탄생하였다. ‘취시’란 취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그때 시절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세상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상식이 일상이 된 그 시대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김덕령은 맹정신으로 자신을 가누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취해야만 세상이 바로 보이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세계를 한없이 원망하고 비웃지 않았을까. 당나라 때 시인 두보(杜甫)도 「취시가」를 남긴 것을 보면 ‘취시’는 시대와 불화를 상징하는 낱말로 봐도 무방하리라.

醉時歌	술에 취해 노래 부르네
此曲無人聞	이 곡조 듣는 사람 없도다
我不要醉花月	나는 꽃과 달에 취하려는 게 아니며
我不要樹功勳	나는 공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도다
樹功勳也是浮雲	공을 세워도 뜬구름이요
醉花月也是浮雲	꽃과 달에 취해도 뜬구름이라
醉時歌	술에 취해 노래 부르네
無人知我心	내 마음 아는 이 없으니
只願長劍奉明君	다만 칼들어 명군 받들기 원한다네

저마다 꽃과 달에 취하여 공을 탐하지만 김덕령은 권필의 꿈을 빌어 꽃과 달 그리고 공 모두 부질없으니 이 모든 것이 뜬구름 같다고 했다. 하지만 취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탄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취해야만 세상이 바로 보이는 이 역설의 힘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기라도 할까. 마지막에 칼로 명군을 받들어 지켰다는 충정이 오히려 더 힘빠지게 들릴 뿐이다.



취시가(醉時歌)

그렇다면 이 시가 어떻게 권필의 꿈에 나타났을까. 두 사람은 생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권필은 김덕령에게 의병을 권유한 송제민(宋齊民, 1549~1601)의 사위이다. 그는 김덕령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자 심히 슬퍼하여 그 내용을 쓴 『와신기사(臥薪記事)』 남겼다. 권필은 장인에게서 김덕령에 관한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며, 그것이 꿈에 나타났을 것이 아닐까 싶다.

취가정 마루에 앉아 오른쪽을 무등산 상봉이 보인다. 뜰 앞에 나와 누정을 마주 보면 네 기둥에 걸린 주련(柱聯)을 읽어본다.

忠貫日月	곧은 마음 해와 달을 뚫고
氣壯山河	기운은 산하에 장대하도다
醉歌於地	이곳에서 취해 노래 부르니
聲聞于天	그 노래 하늘에도 들리겠지

주련에서도 김덕령은 오로지 ‘충’과 ‘장’으로 무등산을 향해 포부를 펼치고 있다. 해와 달처럼 오묘한 마음은 번치 않고, 그 기운 산과 바다를 뒤엎을 만큼 장대하지만,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어찌 취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다만 취하여 부르는 노래는 오직 하늘만이 알아줄 것이다. ♪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를 통해 드러나는 광주 문화도시 미학의 존재



조동범_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와 같이 과거에 산업시설이나 공장이 있던 부지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라고 한다. 일찍이 도시 속에 자리잡은 후, 도시 확장이나 변화에 따라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끼쳐 이전하거나 폐쇄되면서 생기는 부지들이다. 특히 이러한 땅은 그 산업시설의 이력, 도시발전상에서 도시와의 관계, 공장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건축, 조경, 도시설계에서는 개발과 활용을 두고 많은 관심을 모으는 이슈가 된다. 도시화나 산업화가 일찍 이루어졌던 도시일수록 유서 깊은(?) 공장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시대가 바뀌면 도심 내에 남아 있는 산업유물이 되어버리는 셈이다. 과거 부정적으로만 보아왔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근대적 건물이나 구조물들의 순수한 재료 자체를 마주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의 흔적과 인간이 만들어낸 경관의 적층을 실감케 하는 풍경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경관은 도시의 역사가 만들어낸 문화적 소산이자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다. 그런 점들이 주목되어 도시 내의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사이트는 접근성이 뛰어난 공원 또는 문화시설로의 재생사례가 늘어나 포스트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

라는 이전에 없던 트렌드를 낳고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 디자인 경향의 하나로 등장한다.

그 최초 사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레이크 유니온 호수변에 있던 약 8만㎡ 규모의 도시가스 공장터의 개스워크 파크(Gas Works Park)일 것이다. 1956년 이전 후 철거예정이었던 공장건물은 녹슨 그대로 남긴 채 가스공장 공원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공원은 피크닉과 레크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1975년 조경가 리처드 하그에 의해 설계되었다. 장 텡겔리(Jean Tinguely)의 신비적이며 기계조각같은 정크아트와 다른 차원에서, 리처드 하그는 낡은 공장 그 전체를 추상적인 예술작품처럼 보았다. 흉물스럽기만 한 녹슨 설비는 당연히 철거하고 과거 도시가스 공장의 위험과 부정적인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주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인 이 관점은 당연히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주민들의 거부 감정을 바꾸고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산업시설을 보는 관점의 변화였다. 그곳을 자주 찾아가 장소가 나의 느낌이 되도록 순수하게 부지와 대면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점차 알아보게 되고, 과거에 대한 새로운 경관 미학의 가능성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워지지 않는 기름띠와

바닥의 콘크리트는 평야가 되고, 산업폐기물은 빙하의 퇴적물이, 굴뚝은 철로 만든 숲이, 그들의 모여 있는 모습은 가장 성스러운 상징이 된다. 이러한 유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멸종되어가는 근대 공업사회의 한 종을 사멸로부터 구제하는 진화의 길이 보인 것이다.

포스트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의 다른 사례로는 독일 IBA 엠셔파크(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Emscher Park)¹⁾를 들 수 있다. 루르지역은 탄광과 철강 중심의 중공업지대로서 한때 라인강의 기적을 대표하던 독일 산업화의 상징적 존재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기술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구조변화로 인해 심각한 침체를 겪으며 대량실업, 환경오염, 사회적 갈등과 같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생태성,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 지역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엠셔파크 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이다. 건축박람회(IBA)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처럼 산업역사문화유산의 활용, 환경회복을 통한 공원화, 산업 재구조화를 통한 일자리 회복, 노동자 도시와 주택의 재생 등 5개 분야 총 85개의 프로젝트가 1989년부터 10년간 추진되었다. 그 프로젝트 중 에센의 졸페라인(Zollverein)탄광과 함께 독일의 철강산업을 선도하다가 쇠퇴의 길에 접어들어 1985년 이전한, 티센제철소 부지 공원화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포스트인더스트리얼 디자인으로 손꼽힌다. 1989년 설계공모에서 프랑스의 베르나르 라쉬스와 경합을 벌인 끝에 최종 설계자로 선정된 독일 조경가 피터 라츠(Peter Latz)는 최대한 기존 구조물을 존치하면서 환경을 회복하고 재자연화하는 방식으로 공원설계안을 풀어나갔다. 1994년까지 2004년까지 설계와 시공을 거쳐 완성된 뒤스부르크노드 환경공원(Duisburg-nord Landscape Park)은 기존의 푸른 잔디밭과 풍성한 수목으로 대표되던 목가적 풍경이 아닌 완전히 다른 관점의 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철광석을 운반하던

철로, 광석을 담던 벙커들, 거대한 용광로와 굴뚝들, 대형 철판들, 오염된 수로는 산책로와 전망대, 암벽등반, 공연장, 정화된 물길로 변모하였고 전시와 공연, 유스호스텔 등으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정화된 땅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연이 개입하고 풍화되어가는 벽들이 디자인 요소처럼 정원 속의 식물들과 함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녹슨 산업설비와 조경의 절묘한 대비는 공업사회를 성장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원풍경과도 같은 것이었다. 디자인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라는 비판과 공장설비의 완전철거와 생태적 회복을 주장했던 환경보호운동가들의 주장을 넘어 완성된 랜드스케이프 파크는 18세기 낭만주의 풍경식 정원에서 유행했던 폐허미와도 같이 산업인프라를 찬미하는 포스트인더스트리얼 경관을 시민들과 미학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전남·일신방직 이전부지를 둘러싸고 역사와 미래에 관한 적지 않은 담론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이 이 부지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충분한 공론의 장은 제공되지 못한 채 도시개발을 전제로 광주시와 민간개발자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생각하기도 싫은 용도 변경안의 출현이 임박해있다. 이곳은 광주의 근대산업유산이자 방직공장 여성근로자들이 겪은 인권유린과 노동수탈의 아픔을 기억해야 할 장소이지 않은가? 공공과 사유의 여부를 막론하고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와 함께 시민의 문화도시 학습기회가 될 수 있다. 한때, 광주를 예향이나 문화도시로 부르는 것을 위화감이 없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도시가 가지고 있던 문화경관 자산들이 무차별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물며, 진정한 문화도시는 그러한 물질 자산에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유미학의 형성 기회마저 박탈된다면... 광주는 무엇을 근거로 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

1 엠셔파크는 개별공원이라기 보다는 루르공업지대의 17개 도시에 걸쳐 있는 쇠퇴한 루르공업지대의 통합적인 재생프로젝트를 지칭한다.

코로나19 상황 속 영혼과 마음세계 탐구

—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되돌아보기

조인호_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문을 연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개막을 올해 2월로, 다시 4월 1일로 두 차례 연기하면서 계획한 일정들이 틀어지고 행사기간이 절반 줄어든 채로 5월 9일에 끝마쳤다. 1995년 창설행사 이후 어떤 이유로든 당초 예정된 행사기간이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 작가가 60~70%를 차지하는 국제전이다 보니 이 시국에 수십 나라를 상대하는 일들은 여러 제약에 부딪혔을 것이다. 감독이나 작가들은 입국 때마다 보름씩 격리된 뒤 전시를 준비해야 했고, 돌연 개막이 연기되다보니 명색이 국제행사 프레스오픈과 개막식인데도 두 공동감독이나 외국 참여작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초유의 상황까지 나타났다. 행사기간도 원래 87일에서 39일로 줄어서 역대 가장 짧았고, 참여작가도 69명(팀)이니 예전의 절반 정도였다. 어쨌거나 코로나19 시국에 행사를 치러낸 것도, 관람객 확진자나 감염 고리에 얽히지 않고 완주한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이번 비엔날레는 주제가 발표된 뒤 코로나19가 발생한 거라서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의성을 띠게 되었고, 전시에서 시대공감도 높았다.

그것은 현실사회와 맞부딪히는 이슈 파이팅이나 현대 미술의 확장성을 실험하는 예년 행사들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주제부터가 다른 결이면서, 생과 사, 또는 영과 육, 현세와 미지의 세계, 현상계와 정신계, 시공간을 넘나드는 작품들로 장엄하다 못해 비장감이 감도는 전시장 풍경이었다. 지난해부터 세계 곳곳에서 매일같이 이어지는 슬한 주검들과 임시 집단매장, 수천수만 명이 생사를 넘나드는 뉴스들로 심리적 사회적 활동들이 위축되어진 상황이라 그 울림이 훨씬 컸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첨단 A.I나 I.T기술과 접목된 방역시스템과 미디어아트부터 역사의 반추와 시대풍자, 무속, 제의, 영적 교감까지 작품들이 펼쳐내는 전시의 스펙트럼이 꽤나 넓었다. 특히 비엔날레 전시에서는 이례적인 무신도나 민속의례용품, 샤머니즘 풍물과 그림들은 관람자들이 접근해 들어갈 시공간의 폭을 더 넓혀 주었다. 물론 1997년 제2회 특별전 ‘삶의 경계’ 때나 2010년 제8회 주제전 ‘만인보’에서 유사한 기획이나 전시물로 다뤄지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무속적 요소에 비중이 두어졌다.

전시에서 나타나는 주제의 선명성과 더불어 돋보인

것은 공간구성과 장소성이었다. 비엔날레관 1전시실을 전체 전시의 맛보기이자 손님맞이 공간으로 개방하고, 창고처럼 막힌 전시공간들 사이사이에 구조와 색채를 달리하는 부스들로 양념 같은 변화를 가미해 주었다. 또한 긴 관람동선 중에 3전시실에서 반투명 부드러운 천들의 공간분할 너머로 통창 밖 숲숲풍경이 내다보이고, 그 앞 휴식형 영상작품이 배치된 것은 오아시스 같은 휴식처가 되었다.

이와 함께 매 회 광주 곳곳의 역사·문화적 주요 지점들을 전시장소로 연결하는데, 예전에도 몇 차례 사용됐던 광주극장 외에 이번에 처음으로 본전시 공간이 된 국립광주박물관과 양림동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그 공간특성을 살린 기획이 돋보였다. 박물관이어서 전시가 가능했던 선사시대 인골·토기들과 함께 사막지대 고대 무덤유적 관리 영상, 박물관 곳곳을 혼령처럼 흘러 다니는 춤사위 행위영상 등이 그랬다. 선교사 사택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도 유리통창과 붉은벽돌 창고공간, 오밀조밀 미로 같은 지하공간에 맞춰 배치된 영상과 설치작품들이 공간과 어우러져 몰입도를 높여주었다.

이외에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재단, 옛 국군광주병원에 기획된 'GB커미션' 작품들도 각기 독특한 공간효과를 만들어내었고, 은암미술관과 ACC 창조원 5관의 스위스·대만 파빌리온프로젝트도 따로 또 같이 특별한 문화교감의 장을 펼쳐내었다. 국군병원 폐공간에 펼쳐놓은 'MaytoDay' 2021 광주버전은 이 지역 청년작가들 위주로 꾸몄는데, 평상시 자신의 주된 작업방식이나 매체와는 다른 현장성을 살린 색다른 형식의 작품들로 공간해석에서 장소성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동시간대 관람객을 제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입장자연과 대기시간 안내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에 없던 방역관리 행사운영체제에 사전준비가 엇나가거나 현장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규



모 행사에서 사전예약제나 시간대별 입장관리는 코로나19 상황과 관계없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 향후 효용성을 높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한, 2018년도 'GB커미션' 작품이나 지난해의 'MaytoDay' 작품 일부가 이번 'GB커미션' 작품으로 섞여 존속되거나 재전시 되고, 옛 국군병원 폐공간에서 GB커미션과 'MaytoDay' 전시가 하나의 전시처럼 구분이 잘 되지 않은 점은 재고할 부분이다. 대면접촉을 대신하는 오디오가이드나 QR코드 안내시스템, 온라인 전시소개 영상도 변화하는 문화향유방식에서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할 소통장치들이다.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쌓아온 위상과 차별성으로 국제 문화예술계가 주목하는 광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이다. 단지 미술축제만이 아닌 5·18로 구현된 광주 정신의 문화적 표상화와 더불어 시각예술과 인문·사회를 융합하고 지역민은 물론 국내외와 광주를 연결시키는 도시문화의 플랫폼이다. 사적 욕망이나 단세포적 평가들에 휘둘리지 않고 늘 활력 넘치는 광주문화의 창으로 세상을 가꿔갔으면 한다. 

그냥 만화 그리는 사람입니다

정배영_ 웹툰작가



만화 공부를 했었고 웹툰 작가로 데뷔했으며 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웹툰에 관한 연구와 작업을 하고 있는 저는 운이 좋게도 작가라는 호칭을 듣고 있지만, 그 호칭에 더욱 적합한 작업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여러 전공자들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냥 만화 그리는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인 작년 초, 참여했던 장기 프로젝트를 마치고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다음 작품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일을 하며 힘들 때마다 프로젝트가 끝나기만 해봐라. 그동안 못 했던 것들, 여행 등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에게 코로나는 정말 혼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 방 안에서 작업을 하며 지냈던 저는 다시금 방 안에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전의 몇 번 지나갔던 질병들처럼 금방 지나갈 것 같았던 코로나는 사그라들 기세는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재난 문자는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싫다고 했던 마스크는 이제 여러 색깔, 여러 모양들의 마스크 스트랩이 만들어졌으며形形色색 다양하게 디

자인되어 필수 아이템에서 필수 패션 아이템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한 외부 상황으로 계획이 다 어긋나버려서 생긴 애매한 휴식 기간은 이상하게도 자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집에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자책을 한단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프로젝트 이후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던 중이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 힘든 자책과 안 좋은 감정들이 우울감과 함께 점점 차올랐고 그 감정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무기력함은 오히려 게으르다는 자책으로 이어졌고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을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차단되고 전과 다른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니 답답한 마음과 좀처럼 풀리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도 생겼었죠. 저는 자신을 갇아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갇아먹던 저는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관심, 단순한 역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감도 많이

그렇게 ‘그냥’ 그리다 보니 점점 ‘그냥’이라는 단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냥’이라는 말은 자칫 허무하고 가벼운 단어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에 있어 ‘그냥’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고 있기도 했고 점점 나이도 차오르는 중에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림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떨어졌고 저는 ‘이제는 그림을 그만 그려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림을 그만 그려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이유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불안감과 싸웠었고 몇 번은 이겨냈지만 몇 번은 그런 불안함에 잡아먹혔던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무사히 지나갔기에 처음에는 ‘잠시 지나갈 파도’ 나 ‘이슬비’, ‘얇은 물웅덩이’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다른 거대한 파도였고 거센 소낙비였으며 끝이 없이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이제는 그림을 그만 그려야 할 것 같다’에서 ‘그림을 그만해야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들을 찾아보던 저에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동안 해왔던 게 아쉽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이제는 그만할 때가 맞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림에 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생각이 조금씩 변화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재미있었던 일이라서라는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직업이 아니더라도 가볍게 취미생활로 즐겨보자.”라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많이 낮춰졌습니다. 꽤 좋은 취미생활이 될 것 같은 예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직업이 아니라면, 가볍게, 재밌게 하는 거라면 다른 곳에도 업로드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

서 SNS 계정을 만들고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신나서 몇십장의 그림을 그렸던 저로서는 간단하게 구성된 10장 그림은 당연하게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볍게 10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해보기로 계획을 짰는데 10일에 한 번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재밌는 것, 뭔가 대단한 것을 그려야 할 것 같은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이제야 저는 어렵פות이 알고 있던 부담감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자라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일에서 주 1회로, 주 1회에서 주 3회로 바뀌었고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부담이니 처음엔 퀄리티를 아주 낮춰서 그리자라는 생각을 했고 최종적으로 주 3회에서 매일 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획하며 진행하지 않았던 거라 처음엔 제목도 형식도 내용도 뭐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어렵פות이 매일매일 가벼운 일상을 일기처럼 남겨두자.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그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리다 보니 점점 ‘그냥’이라는 단어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냥’이라는 말은 자칫 허무하고 가벼운 단어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에 있어 ‘그냥’이라는 단어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가볍게,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제 만화와 어딘가 모르게 닮은 점이 있다고 느껴졌고요. 그렇게 만화의 제목은 ‘그냥 만화’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담감을 낮추며 직업에서 점점 취미생활로 바뀌던 중에 오히려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단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고 부담스럽



지 않은 선에서 퀄리티를 올리던 중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려보야겠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기엔 망설임이 컸습니다. 자신이 없었죠. 어디까지나 주위 사람들이 좋게 말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도 이건 그냥 그림일기 정도지, 만화 작업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던 중 감사하게도 독립서점에서 주관하는 독립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SNS에 매일 한 편씩 올리던 만화가 책으로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일과 제 만화를 봐주시는 분들 덕에 점점 자신감을 붙였고 다시 그림을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지칠 때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림이 너무 힘들거나 어렵거나 전만큼의 재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길고 긴 생각의 끝에는 항상 다시 '재밌게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으로 변하고 결국 그 끝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업로드하는 『그냥 만화』 처럼 말이죠. 물론 전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묵묵히 그림을 재밌게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좋아했던 것이니까요. 웹툰 작가로 데뷔했고 그림을 계속 그렸었고 대학원에서 웹툰에 대한 연구와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더더욱 완벽한 만화를 그려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초창기의 저는 이제 SNS에 가벼운 일상 만화를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 뵙진 못하지만 다양한 작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영감도 받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쳐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을 꾸준히 하면 그 꾸준함이 언젠가 자신의 길로 변하고 그 길에서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는 날,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 서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우여곡절과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다시 그림이 재밌어졌고 계속해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저는 '그냥 만화' 그리는 사람입니다. ♪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시향(詩香), 시낭송의 물결



김수하_ 시낭송가, 광주재능시낭송협회 전임회장, 다형시낭송회 회장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날 때가 있다
그게 저 혼자 피는 풍경인지
내가 그리는 풍경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풍경일 때처럼
행복한 때는 없다

-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중에서

정현종의 시인의 시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에서 처럼 시와 사람이 어우러져 소리로 만들어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좋다. 각양각색의 사람의 목소리에서 울리는 시의 향기들은 그들의 다양한 삶을 담아 표현한다. 그것들은 세상의 어떤 꽃의 향기보다 진하고 보석처럼 빛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시낭송 운동의 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시인들이 많고 그 시인들의 시를 책자 속만

이 아니라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만난다. 이에 더하여 시낭송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 속에 나는 내가 ‘시낭송가’인 것이 좋다. 공연을 기획하고 연출하여 작품을 무대에 올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시의 아름다움을 공감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시간들에, 가장 기쁨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함께 하는 이들과의 소통의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시낭송가라고 소개하는 것에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이 낭송이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낭송이지만 시의 여백을 소리로 표현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과 연, 행과 행간 속의 숨어 있는 의미와 단어 하나하나가 주는 느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나만의 소리로 잘 전달할 것인가 끊임없는 고민 때문이다.



이러한 시낭송이 시낭송대회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것은 1967년 12월 2일 서울의 시민회관(세종문화관전1에 신)에서 열린 '시인 만세'에서였다. 그리고 1986년 두 번째 '시인 만세' 시낭송대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TV로 중계되었다. 이처럼 시낭송의 물결이 시작되면서 1987년 '시인 만세'에서 열린 시낭송대회 본선 수상자에게 처음으로 '시낭송가'라는 칭호를 수여하게 된다. 이러한 시인만세의 시낭송 대회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는 것이 재능시낭송대회이다.

올해 제31회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규모가 큰 시낭송대회로 1차, 2차 온라인 예선, 지역예선 대회, 본선대회를 통해 전문 시낭송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많은 시낭송가들이 최종적으로 참가하고 싶어 하는 대회로 시낭송의 물결을 확산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낭송 운동은 시낭송대회 외에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많은 시낭송 단체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시낭송 단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이 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재능시낭송협회이다.

재능시낭송협회는 1993년 결성이 되어 서울의 중앙회를 비롯하여 부산, 광주, 울산, 경남, 대구, 대전, 전북, 제주, 강원, 전남, 충북, 경북, 충남, 세종, 밀양 등 국내 15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에도 지회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활동하는 회원 수도

전국에 800여 명에 이른다.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광주재능시낭송협회(회장 김귀숙)도 1993년 결성되어 올해로 28년째 시낭송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관공서, 시낭송을 원하는 어디든지 찾아가 시낭송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목요시낭송회와 정기 공연을 통해 시의 향기, 시낭송의 즐거움을 전하고 있다.

또한 광주에서만 활동이 아니라 2019년 포항에서, 2020년 전북에서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등 시낭송가들이 만나 호남과 영남 「동서 공감」 교류 시낭송 공연을 통해 서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었으며, 올해 2021년 7월에는 지리산 정령치에서 호남과 영남의 시의 향연이 이루어진다.

특히 2019년부터 '우리지역시인과 함께 하는 목요시낭송콘서트'에서는 우리 지역의 시인과 시인의 시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시낭송콘서트를 진행(오소후 시인, 김종 시인, 임원식 시인 편)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우리 지역의 시인들과 함께 하는 콘서트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2020년 11월 27주년 정기공연에서는 시낭송 30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시인(김현승, 김종, 임원식, 강만, 오소후, 고재중, 이근모, 박원자)의 시를 시포퍼먼스, 시극, 시 노래와 「아! 광주여 무등이여」라는 작품을 공연으로 풀어내기도 하였다. 특히 강만 시인의 작품에는 시인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여 뜻 깊은 공연이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역시인들의 시가 시인들과 시낭송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낭송 문화가 더욱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날은 햇살이 넘기고
어떤 날은 빗소리가 넘기고
어떤 날은 맥장구름이 넘기고
어떤 날은 꽃가지 흔드는 바람이 넘기고



어떤 날은 속눈썹이 매단 눈웃음이 넘기고

- 김종 시인의 「하루를 넘기는 것들」 중에서

시낭송교육자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선생님은 오늘은 무슨 시 해요? 또 언제 와요?' 묻는 초롱초롱한 눈빛의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우울한 코로나 시기에 말벗과 소통을 위해 2시간의 수업을 받기 위해 왕복 2시간 30분을 매주 오시는 할머니. 시낭송을 하게 되면서 삶의 또 다른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 이들에게 시는 어떤 의미이며 시낭송은 어떤 의미일까?

시낭송을 통해서 서로 서로 토닥토닥 마음의 상처를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며 삶의 또 다른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 사람의 영혼의 내부에 가장 깊이 스며들어가 영혼을 우미(優美)하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근 광주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광주 시낭송가들이 펼치는 시낭송 한마당' 지하철에서 시민들과 만나게 되는 시낭송영상을 시낭송가들로부터 받아 편집하면서 광주 시낭송가들의 소리예술을 통해 시낭송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노래처럼 공연에서만 이 아닌 일상공간에서 시낭송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시낭송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최대호 시인의 「내마음」처럼 마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우산 있어?

없으면 데리러 갈게.

아 우산 가져왔어?

그래도 데리러 갈래.

- 최대호 시인의 「내마음」 전문 ♪

나의 디자인 스튜디오 창업 도전기! '일층몽구점'



이지유_ 일층몽구점 대표

일층몽구점은 어떤 그룹인가?

저희 '일층몽구점'은 디자인 문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귀엽고 아기자기한 디자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층몽구점'은 일층에 사는 몽이(가상의 캐릭터)가 주인공인 문구점이라는 네이밍으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아울러, 레트로풍 가득한 브랜드 네이밍과 어울리는 캐릭터 시리즈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문구 창업을 도전한 계기

저는 학창 시절,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해, 학교와 학원을 병행하며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중물로 삼아,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직업이 디자이너의 기본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틀린 디자인 일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하기보다, 나의 관점과 감성을 표현한 진정한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어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읍성 청년 창업 거리에 창업한 이유는?

시기와 의지가 통한 덕분입니다. 나만의 디자인을 향한 굴뚝같은 의지 덕분에 바로 창업 준비를 계획했습니다. 창업 지원사업을 찾던 중, 나주읍성 청년 창업 거리 공고를 발견했고 고심과 여러 조언 끝에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서류와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당당히 합격했고 이제는 나주읍성 거리 대표 소품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창업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합격 후, 작업실 겸 매장을 준비하기 위해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방문한 곳은 인적도 드문 골목에 다 쓰러져가고 있는 창고같은 건물이었습니다. 문제는 인테리어 공사비에 비하면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비를 대폭 줄였고, 다른 창업자분들과 상부상조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디자이너인 저는 창업자분들의 디자인 작업을, 창업자분들은 제 매장 페인트칠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반

셀프로 무사히 공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업가 그리고 제작자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창업 당시,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일층몽구점'이라는 공간을 직접 디자인한 제품과 볼륨감을 주는 귀여운 소품을 판매하는 쇼룸 겸 소품샵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샵 운영 방법과 업종에 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재고관리와 판매가 설정, 판매로 개척 등 창업 기초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SNS를 통해, 꾸준히 관찰했던 소품 샵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감격스럽게도 대표님께서 제 상황에 공감해주셨고, 컨설팅과 더불어 세심한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날은 창업가이자 제작자로서 어떻게 샵을 운영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지, 독창성 있는 나만의 디자인을 확립해 나아갈지, 디자인 문구 문화를 형성할지 고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력한 시간만큼 일층몽구점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SNS 규모도 커지고, 온라인 스토어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인근 작업실 대표님들과 관내 소재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창업의 중요한 요소

“창업에 필요한 요소는 끝없이 많고, 중요한 요소는 열 손가락에 담기 힘들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3가지만을 뽑자면 ‘디자인 능력과 관점, 실행력, 창업 지원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디자인 능력과 관점. 디자인 창업 또는 디자인 문구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존의 제품을 가져다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각과 색채로 창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하고 개성이 있는 디자인이 곧 타깃의 눈에 들어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실행력. 나만의 디자인을 했다면, 실제 구현해서 판매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의 목적은 판매, 곧 수익입니다. 제품의 소재도 탐색해보고 제작업체도 여러 곳 만나보아야 합니다. 창업의 실무적인 부분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창업 지원사업. 아이디어도 좋고 실행력도 좋지만, 자금과 부가적인 요소가 없으면 창업의 길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여러 지원사업을 찾아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창업 부담과 실패율을 줄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디자인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한 마디

창업의 성과, 즉 목표수익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창업의 목적을 중요시합니다. 디자인 문구 창업을 통해, 나만의 디자인 시리즈를 확대해 나아가고 디자인 문구가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표님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창업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창업 목적을 그려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때로는 생기 넘치는 나누음성 거리로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일층몽구점도 들려주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고 걸었다

전경훈_ 뉴스핌 기자



배우 김소현이 한복을 입은 사진을 SNS 공개하자 댓글에는 “중국 전통문화를 홍보해줘서 감사하다”, “중국 전통 의상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한푸(漢服, 명나라 전통 의상)는 아름답다”라는 중국인들의 댓글이 달렸다.

어릴 때부터 한복은 우리나라 전통 의상이라고 배웠고,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당연한 사실이었다. ‘중국에선 사람 빼곤 모두 짝퉁을 만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지만 있는 사실까지 부정하리란 생각은 못했다.

댓글을 보고 화가 나기보단 그냥 멍해졌다. 한복이 전통 의상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내가 한복을 입어본 적은 있는지, 한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누군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색동한복을 입었던 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한복을 대여하려고 보니 광주에선 결혼식 때문에 대여해주는 곳 외에는 마땅히 빌릴 곳이 없어서 당근마켓(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

한복은 어릴 때 이후 처음이니 조금 무난한 걸로 취향에 맞게 잘 사고 싶었다. 분홍색의 저고리에 남색 배자, 독립투사를 연상시키는 검정 두루마기가 내 시선

을 붙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에 자리를 피했다

판매자에게 한복 구매 문의를 하니 “결혼하세요?”라는 대답이 먼저 돌아왔다. 판매자에게 기사 취지를 설명하자 그는 자신도 결혼식 때문에 한복을 맞춘 거라 다들 결혼식 때만 입는 줄 알았다고 했다.

명절도 아니고, 한옥마을도 아닌 도심 한복판에서 한복을 입는 것은 처음이니 집 근처부터 돌아다니려고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한복 판매자처럼 결혼하냐고 물었다. 팬스레 심장이 쿵쿵거려 ‘전통 의상은 부끄러운게 아니야’라고 자기 암시를 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그저 걷고만 있을 뿐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옆을 지나던 한 커플은 “요즘 ‘도를 아십니까’는 한복 입고 돌아다니네”라고 수근거렸다.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부끄러워져서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시선에 '익숙'... 적응하니 편했다

한복을 입고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3일간 보냈다.

예상대로 밖에 나오자마자 시선이 쏠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도, 산책하던 동네 어르신도, 식당 직원도, 등교하던 학생들도 대놓고 뻔히 쳐다봤다. ‘도를 아십니까’, ‘결혼식’, ‘연극 배우’ 등 일상복이 아닌 어떤 이유가 분명해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길에서 만난 행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쳐다봤다. 민망하고 위축됐다. 못입을 옷이라도 입고 나온 기분이 들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에 적응이 좀 됐다. 편한 건 아니고, 수근거림에 적응됐다. 한복은 촌스럽고 양복은 우아한 것이라 여겨지는 듯 했다. 시선의 쏠림에서 조금만 벗어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 사이즈가 조금 큰 감이 있었지만 츠리닝보다 맨들맨들한 재질에 통풍은 잘 되면서도 보온감은 유지됐다.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다. 한복엔 주머니가 없어서, 스마트폰과 지갑을 손에 들어야 했다. 한복을 입으니 나도 모르게 뒷짐을 지고 걸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러다 무심코 주머니 쪽에 손을 짚러 넣으려다, 허전하단 걸 깨달았다. 적응하는 데엔 시간이 좀 필요했다.

야 너두? 야 나두!

체험 둘째 날에는 전주 한옥마을에 갔다.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점심쯤 도착한 한옥마을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외국인도 한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 한복을 입기도 하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하고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서 걸을 때 시선이 쏠렸던 내 한복도 이곳에선 가장 수수한 한복이었다.

너도 한복, 나도 한복. 모두가 한복을 입은 거리에선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한옥마을을 벗어나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던 중에도 사람들의 시선은 모아졌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쳐다보지? 이 생각 했는데 너를 쳐다본거네”라며 떨어져서 걸으라고 했다.



3일간 체험이 끝난 뒤에는 셔츠를 입고 외출했다. 요즘 부쩍 살이 쪼뼛에 단추가 금방이라도 튕겨져 나갈 것 같았다. 한복을 입었을 땀 못 느꼈던 핏(fit)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금방 단추가 탈출할 것 같은 핏의 셔츠보다 나풀나풀 한 한복에 더 시선을 쏟았다.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옷을 입는데 한국인들이 되려 신기하게 볼까. 이런 대중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양복처럼 한복을 입고 다녀도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해본다. ♪

페미니즘과 영화 <택시운전사>



조정인_ (주)나무와 달 청년인턴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서울에 사는 ‘김사복’이라는 낯선 이들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제3자로 분리되는 두 사람은 관객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5·18 영화들 보다 더욱 폭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한다.

<택시 운전사>는 무지했던 소시민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내면서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하여 적당한 픽션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영화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영화가 아닌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더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신선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영화를 이끄는 중심인물은 정치에 관심 없는 중년 남자, 그리고 그와 동행하는 외국인 남자이다. 여기까진 실존 인물이다. 하지만 이들을 돕는 조력자 역시 남자들로 이루어졌다. 극에 슬픔을 극대화하여 인물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재식’도 당연히 남자였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 영화를 되새김질 할 때 기억에 남는 장면 속엔 모두 남자들 밖에 없었다.

5·18민주화 운동에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절대 아니다. 설령 여성들의 참여가 없었다 할지라도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영화에 그저 남성 중심의 영웅 일대기가 된다는 것이 탄식만 나올 뿐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심인물들의 ‘뒤’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닌 그들과 같은 위치 또는 누구보다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 인물이 단 한 순간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영화의 한계를 보여줬다. 상상에서조차 역동적인 여성 인물 하나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부한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택시 운전사>가 주고자 한 메시지는 큰 울림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잘 전달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에 진 빛을 무겁지 않게 다뤘기에 몹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영화 <화려한 휴가>와 달리 5·18이라는 주제에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영화 <택시 운전사>가 표현한 계엄군과 그에 따른 희생자들의 모습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역사의 단면으로부터 분노와 슬픔을 끌어올린 것 대신 한 인간이 진실을 마주하게 됨으로써 각성하는 모습에 안도와 환희를 느끼게끔 만

든 영화이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역사 영화를 볼 때면 흰 와이셔츠에 커피 한 방울이 튄 것 마냥 계속 신경이 쓰인다. 왜 우리는 남자로서만 저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일까? 결국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뒤덮어 짹짹한 영화들이 많아지고 말았다.

하지만 짹짹함을 느낄 새 없었던 역사 영화가 하나 있다. 바로 <암살>이란 영화이다. 필자는 <암살>이 개봉하던 당시에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던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그럼에도 흔히 말하던 ‘큰일은 남자가.’ 이 명제를 뒤바꿔 한국 독립군 저격수이자 대장인 ‘안옥윤’이 이끌어 나간 서사는 짜릿하기 그지 없었다. 총을 든 대장, 떠오르는 여성 인물이 있는가? 아쉽게도 영화 <암살>이 개봉한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옥윤’이란 인물 단 한명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외국 배우 케이트 블란쳇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댐은 무너졌고, 그 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이유는 없죠. 여성 중심의 영화는 여전히 투자 받기 힘들어요. 여자들은 그만 참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렇듯 수뚫물처럼 쏟아지는 영화 산업계에서 여성들의 갈증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나라 영화 산업만큼 이를 즐기는 관객의 수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남성 중심의 서사가 취향이고, 이에 눈물 흘리며 감동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영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취향의 차이니까. 하지만 남성 중심의 영화 산업계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거는 남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주는 여성으로만 그려지기엔 아까운 위대한 여성들이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 역사 속에도, 상상 속에서



<택시운전사>

도 말이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그저 투덜대는 것으로만 보일지도 모른다. ‘여성이 주가 되는 건 인기가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야.’ 이런 말도 심심찮게 들어왔다. 물론 상업 영화는 돈을 위해 제작되는 것이니 대중의 입맛에 최대한 맞춘 최고의 요리를 선보여야 한다. 그런데 눈앞에 놓인 최고의 요리를 작년에도 먹었고 당장 어제도 먹었던 것이라면 질리는 게 당연지사 아닌가.

우리는 신선한 영화를 원한다. 우물 안의 물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개구리는 이제 밖으로 뛰쳐나가 멍멍한 강물도 맛보고 광활한 바닷물의 짠맛도 느끼고 싶다. 좁은 영역 안에서 여성이 지워질 수밖에 없는 영화가 아닌, 남성만이 할 수 있던 범위 내에 다채로운 여성들이 박차고 나와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택시 운전사> 속 ‘김사복’이 1980년의 광주를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중문화라는 물마루 속에서 그저 휩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이 유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게으른 상상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

문화톡톡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김옥열_ 사진작가

춤으로 크게 하나된 광장
팬데믹으로 위기에 선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한 융합예술 심포지움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가 지난 5월 29일 열렸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뉴욕 유니언신학대학 환경 교수 토크쇼와 대동의 춤, 미술가와 시민들의 릴레이아트 등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민주주의의 성지 5·18민주광장에서 대동의 춤 출연진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펼친 대동춤판. ♪





재단소식

[재단소식]

•사업

지난 5월 29일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예술축제가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융합예술축제로, 위기의 시대에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모색해가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 날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김덕진 이사장의 축하메세지와 함께 오프닝에서는 최보결 안무가 외 4개 팀이 오월어머니와 함께 '공동체의 혼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커뮤니티댄스를 선보였으며 이후 뉴욕유니언신학대학 정현경 교수가 '코로나시대, 인류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들과 즉문즉답 토크쇼를 가졌다.

이와 동시에 분수대를 중심으로 펼쳐진 오월정신 릴레이아트에는 '신화미술관' 관장 김봉준, '세월오월' 민중화가 홍성담,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핫 이슈가 된 '일제를 빛낸 사람들' 작가 이상호, 양림동의 산 증인인 한희원 작가 등 50여 명의 전문작가와 시민가족 10팀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로 전 세계로 송출되었으며 아시아문화전당 미디어월에도 동시 송출되어 시민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여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해설이 있는 광주비엔날레 탐방' 개최

우리 재단이 5월 7일(금), 여섯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해설이 있는 광주비엔날레 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주제전과 커미션을 관람하고, 시민들과 함께 비엔날레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갖고자 기획됐다.



전담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구 국군광주병원 순으로 관람하며 관람 후에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비엔날레 토크도 진행했다.

광주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역사로 만나는 정의로운 광주정신과 민주시민의식' 개강



우리 재단은 '역사로 만나는 정의로운 광주정신과 민주시민의식'을 주제로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광주시민대학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화·금요일 광주 동구 미로센터 및 광주 일원에서 강좌와 답사, 토론을 병행해 진행된다.

구체적 내용은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정신 '정의로운'과 건강한 시민의식'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광주의 임진·한말 의병'(황행자 남도역사연구원 수석연구원), '광주와 일제하 항일독립운동'(김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광주와 반독재 민주화운동'(노영기 조선대학교 교수), '호남정신과 전통문화'(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조직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53호) 기획회의 개최

문화담론지 『창』 여름호(통권 53호)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가



3월 25일(목) 11시, 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창』 여름호(통권 53호) 특집기획, 문화진단, 문화현장 카테고리 주제를 중점적으로 의논하였다. 대표적으로 특집기획 기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와 민선7기 광주광역시 문화 행정 평가에 관해 다루기로 하였다.

우리 재단이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문화담론지 『창』은 문화 정책 현안과 문화 담론 외에도 문화 청년그룹 소개, 문화리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임·회원뿐만 아니라 행정, 유관기관, 시민문화예술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2대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소장에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선임



지난 4월 22일(목) 열린 재단 부설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이하 연구소) 기획위원회는 김덕진 소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영전하여 꺾위가 된 2대 연구소장에 노성태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신임 노성태 소장은 국제고 수석 역사교사를 역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으며, 퇴임 후에도 남도역사연구원을 개설하여 광주학 및 관련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연구소의 핵심 사업인 <광주여행기 단행본 편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공모하는 <호남한국학 열린강좌> 사업도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연대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전일방 문화탐방



<전일방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주관으로 전일방 문화탐방이 지난 3월 20일(토)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조광철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실장의 안내로 진행된 이번 문화탐방은 광주의 마지막 남은 근대산업문화유산인 해당 부지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보존 원칙 및 기준, 활용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앞서 시민대책위의 활동과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추진된 행사였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우리 재단은 시민대책위에 공동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일방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17차 아문도시 이슈포럼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 개최



지난 5월 6일(목) 14시, 전일빌딩 245 다목적강당에서 '아특별 개정 이후 문화전당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17차 이슈포럼이 개최되었다.

지원포럼과 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지난 2월 아

재단·회원소식

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의 공유 및 이 과정의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의 사회는 우리 재단 이기훈 상임이사, 좌장은 송진희 호남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에 황병하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조덕진 <무등일보> 논설실장,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 정두웅 (사)청년문화허브 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은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역의 제안'으로 정부, 정치권, 청와대 등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문화분과장 역할 수행



지난 4월 15일(목),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행정과 중간조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광주의 핵심 현안과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토론과 속의 과정을 거쳐 해법을 마련하고 공동 실천하는 기구다. 우리 재단은 협의회 9개 분과 중, 문화분과의 분과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광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실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지형원 이사(문화통 발행인), 『문화통plus』 봄호 발간
 사단법인 광주문화발전소(발행인 지형원)가 발행하는 『문화통

plus』 봄호가 발간됐다. 의료인이자 광주지역 1세대 메세나 운동가로서 현산 문화상을 제정해 비구상 미술 그룹 에쁘꼬를 후원하고 문학인들을 지원했던 현산 김두원 박사를 추모하는 에디터레터 「현산 김두원 박사를 그리워 함」이 머리글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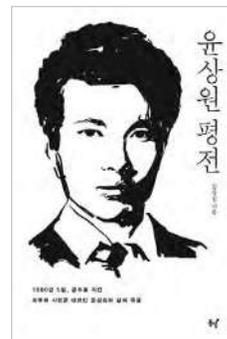
장기 시리즈 「전남의 마을 1박 2일」에서는 의병장 김천일 장군과 청계공 김응회를 배출한 언양김씨들의 집성촌인 담양 아매곡과 강진읍 팔영마을을 찾아 언양김씨들이 전라도로 내려온 배경과 후손들의 활동을 실었다.

이밖에도 음식으로 읽는 문화 '명태' 이야기와 퓨전 음식이 범람하는 이때 진정한 단품 요리를 고집하는 진정한 '전라도 밥상'을 찾아 나섰으며 콩트보다 짧으면서 짜릿한 '손바닥 동화' 광주비엔날레 뉴스 등 읽을거리가 풍성하다.

- <전남매일>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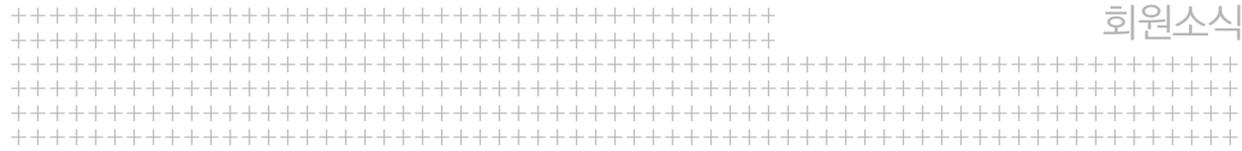
김상집 후원이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윤상원 평전』 발간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에서 공수부대 진압군에 맞서 최후항전을 펼친 무장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의 삶과 활동을 기록한 『윤상원 평전』이 발간됐다. 저자 김상집은 시민군 최후의 항쟁 거점인 옛 전남도청에서 윤상원이 숨을 거둔 순간까지 그를 근거리에서 5월 항쟁을 함께 했기에 그의 기록은 윤상원의 삶을 빈틈없이 꿰뚫고 있으면서도

5·18의 전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자 김상집은 1956년 전남 장성군 필암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수의대를 나와 동물병원을 운영했다. 1980년 5월 민중항쟁 당시 녹두서점에서 윤상원과 함께 화염병을 제작하고 투사 회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전남대 스쿨버스를 타고 가두방송을 했다. 5월 23일부터 열린 민주수호범시민월기대회에서는 대학생과 예비군을



시민군으로 편성·배치하는 일을 했다. 저서로는 『필암서원』(공저, 2018), 『녹두서점의 오월』(공저, 2019) 등이 있다. 현재 (사)광주전남6월항쟁 이사장으로 일하며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이사도 겸하고 있다.

- <더팩트> 발췌

진시영 운영위원(미디어아티스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벽 '빛의 나무' 영상 상영

광주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구축사업은 비엔날레 전시관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아트로 비엔날레 전시 기간 중 금·토·공휴일 야간에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의 '빛의 나무' 영상이 상영되며 향후 수시 운영을 통해 비엔날레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계획이다. 좋은 빛 상징거리화 조성사업은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디자인가로등을 설치해 벚꽃과 어우러진 비엔날레 거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행사 폐막 이후 용봉동 벚꽃거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광남일보> 발췌

이민원 이사(광주대 교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발대식 기조강연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 부산시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6일 오후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 행사는 1부 발대식, 2부 기조강연, 3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1부 발대식은 김대래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부산상의 회장의 인사말,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 축사, 경과보고, 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광주대 이민원 교수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지방의 희망을 건다'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이민원 교수는 강연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를 발휘 못 하는 점과 남부권의 타격이 심한 점, 현 정부 임기 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촉구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 <CNB뉴스> 발췌

한선 운영위원(호남대 교수),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법정위원회로, 출범 후 1차 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에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2021년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제5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김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 위원에는 △강소영(서울디지털대 교수) △고민수(강릉원주대 교수) △김희경(성균관대 교수) △이만제(원광대 교수) △이준호(동의대 교수) △전경란(동의대 교수) △한 선(호남대 교수) 등 9명의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21. 3. 15.~'24. 3. 14.)이다.

- <정보통신신문> 발췌

신규회원 "환영합니다"

- 장선정(문화시민)
- 조수빈(문화시민)
- 김세민(닥터에스더커피연구소)
- 김성환(공무원)
- 강성은(공무원)
- 최금천(문화시민)
- 임성화(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엄도영(문화해설사)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전 국회의원장 비서실장, 광주대 초빙교수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정희 『광주문학』 편집주간, 시인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남성숙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노성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견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수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전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공석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화가,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성수 SDC Korea 대표

김성환 리얼플랜광주 대표이사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썬 대표

김향득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연구원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조재용 비콘컴퍼니 대표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이상필 동신대 교수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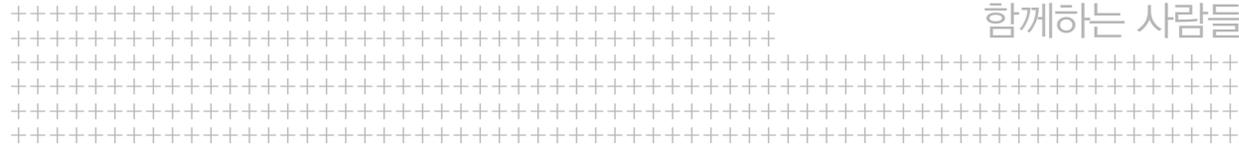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컨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식나눔센터장,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목포지회장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김경옥 약사

김동규 준이앤씨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성환 (주)마실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혁 (주)울림 부사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차일현 (사)빛고을사진문화포럼 이사장, 세무사

황재익 오스메딕 대표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은 운영팀장

이지호 사업팀장

김남중 청년인턴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광주문학』 편집주간, 시인

〈편집위원〉

김향득 사진작가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김옥렬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운윤 시인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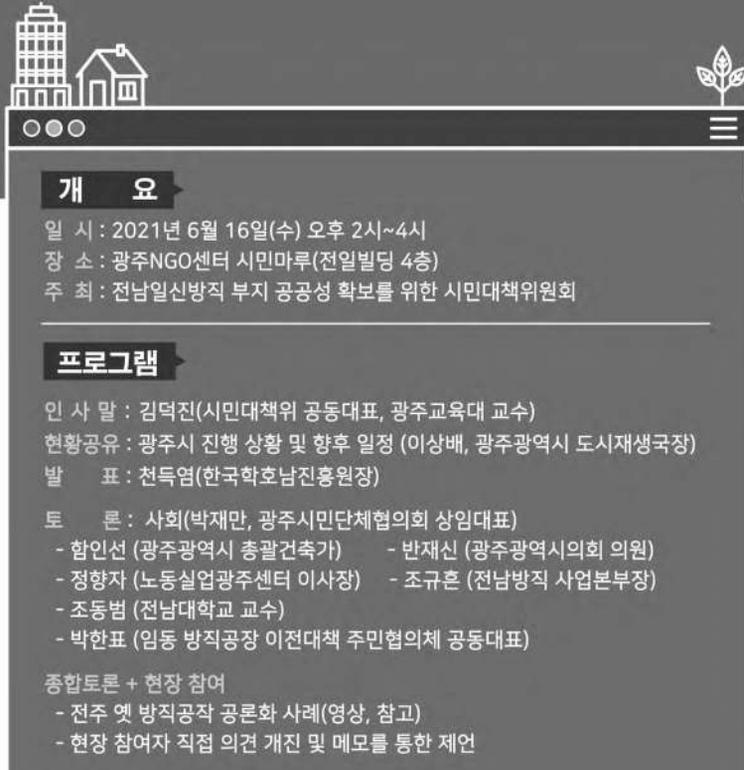
이번 호 『창』 표지의 초록 나무를 보며 여름 숲의 찬란한 파문과 산문의 문장으로 숲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고요를 함께 읽습니다.

한동안 폭설 같은 코로나에 갇혀 있던 마음에 백신은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용기를 줍니다.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새로운 주류문화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그 해 오월을 반추하는 우리들의 기억제 “세계의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현재의 호흡을 싱싱하게 담아서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 『창』에서는 아특별 개정안 국회통과 후 광주 문화계의 다양한 이슈를 과도(?)하지 않은 열정으로 짚어 보았고 문화 정책 현장의 목소리도 귀 기울여 담아 보았습니다. 육고 주신 필진님들과 편집실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이지호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문화담론지 『창』 편집위원장

전남일신방직! 보존과 활용 어떻게 해야하나?



개 요

일 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4시
장 소 :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전일빌딩 4층)
주 최 :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프로그램

인 사 말 : 김덕진(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광주교육대 교수)
현황공유 : 광주시 진행 상황 및 향후 일정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발 표 : 천득염(한국학호남진흥원장)

토 론 : 사회(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 반재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정향자 (노동실업광주센터 이사장) - 조규흔 (전남방직 사업본부장)
-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
- 박한표 (임동 방직공장 이전대책 주민협의체 공동대표)

종합토론 + 현장 참여

- 전주 옛 방직공장 공론화 사례(영상, 참고)
- 현장 참여자 직접 의견 개진 및 메모를 통한 제언

窓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

광주 전라남도청 구 본관(光州 全羅南道廳 舊 本館)은 광주광역시 동구(광산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로, 1930년 12월 5일에 완공되었으며 지방출신 건축가 김순하에 의해 설계되었다. 2002년 5월 31일 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 제16호로 지정되었다.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이었던 광주 재진입 작전으로 인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민선 7기 남은 1년, 문화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개 요

- **일시** : 2021. 6. 24(목) 오후 3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강당
-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 상상실현네트워크
- **주관** : (사)청년문화허브, (주)잇다, (주)파크인터네셔널, (협)플리마코 협동조합, 동네쫄인, 만렙기획, 버틀러스코리아, 안다미로, 오로지스튜디오, 와사비아, 청년미래전략센터,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장애인문화협회,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사)대동문화재단,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극단 연인, (사)윤상원기념사업회, 오월어머니집,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무순)

프로그램 사회 : 한선(호남대학교 교수)

- **발 제** : 김준영(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장)
- **지정토론** : 임인자(소년의 서 대표)
- **패 널**
 - 박호재(전, 광주문화재단 정책실장) - 이강필(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무처장)
 - 정진삼(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 - 김종필(광주문도협 협동사무국장)
 -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 정두용(청년문화허브 대표)
- **종합토론 + 현장 참여**

동서화합, 국민통합의 철길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합니다!

달구벌 대구에서 빛고을 광주까지

